

# '3퇴'와 평안

제200기 2014년 12월 29일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12월 18일까지 1억 8,750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 루 이모의 소원

[밍후이왕] 금년에 78세인 루 이모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더운 여름이나 엄동설한이나 관광 명소인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일 4~5시간씩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그들이 중공의 당, 단, 대('3퇴'라 약칭함)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제는 '증기 시계'에서, 오늘은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루 이모는 "저 자신도 중공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가 다른 사람 덕분에 깨어났어요. 저는 지금 시간을 틀어쥐고 미혹된 중국 사람을 깨우치겠어요."라고 말했다.

항상 '캐나다 플레이스' 명소에서 진상을 알리는 루 이모가 하루는 중국 대륙에서 관광 겸 탐방을 온 40세 되는 남성을 만났다. 그 관광객은 자신의 회사를 외국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루 이모는 그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략적인 정황을 파악한 후 그에게



밴쿠버 요고대 행진팀에 있는 루 이모

파룬궁은 무엇이며 왜 3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3퇴가 정의로운 행동이며 좋은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등을 알려주었다. 그 남성은 "나는 무엇도 믿지 않습니다. 복이요 뭐요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경기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루 이모는 그 말에 낙담하지

않고 그에게 6·4, 파룬궁에 대한 박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한 것 등 몇 년 동안 중공이 저지른 갖가지 악행에 관해 알려주었다. 또 선에는 선한 보답이고, 악에는 악한 응보가 있다는 말이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면서 공산당이 갖은 악행을 저질러 천리도 용

납할 수 없을 것이니 3퇴를 해야만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50분 넘게 진상을 알려주었다. 결국 그 남성은 "이모, 저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감격한 목소리로 "파룬궁은 참 좋군요. 저희 모친도 이모와 같은 연세인데 건강은 이모보다 아주 나쁩니다. 마치 하느님이 당신을 저에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루 이모는 그의 어머니에게 '파룬따파 하오, 쪐싼린 하오!(法輪大法好, 真善忍好!)'를 성심으로 외우게 하면 역시 신과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 남성은 기쁘게 대답했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

하면서 작별했다.

지금 루 이모의 가장 큰 소원은 지금도 중공의 거짓말에 기만당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사상적으로 중공을 탈퇴해 최후에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희생양으로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중공 해외협회장 타이완 방문, 높은 비난의 목소리

[밍후이왕] 2014년 12월 9일,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인권망나니인 중공 해외협회장 천더밍이 8일간의 여정으로 대표단을 거느리고 타이완에 도착해 쓰촨베이, 타오위안, 화둥, 평등, 신주 등 현, 시를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비난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을 무릅쓴 각 지역 파룬궁 수련생들은 '원흉을 법에 따라 처단하고, 박해를 멈추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높이 들고, 천더밍의 자동차 대열을 향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추라', '파룬따파 하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천더밍은 산시성 상무부성



현수막에 쓰여진 파룬따파 하오.

장으로 있을 때인 2002년, 산시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에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해 10월 20일,

천더밍은 성 공안청을 시찰하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 천더밍이 상무부성장으로 있는 동안 산시성에서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다.

천더밍이 마침 세계인권일을 전후해 타이완에 오게 되자 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중공의 인권 박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고, 타이완 사람들이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표시했다.

천더밍이 타이완에 있는 동안 시민단체는 항의활동을 펼치며 그를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 중공의 고문: 달아매는 고문

글/ 페이바오

[밍후이왕] 달아매는 고문은 일종 혹형으로 '상따과(上大掛)'라고도 한다. 영화와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따과를 보면 뱃줄로 두 손을 묶은 후 달아매어 사람을 괴롭힌다. 만약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 달아맨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수갑은 반 센티미터 굵기도 안 되는 강철로 만들어져 정말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가한다. 게다가 사악한 경찰이 이런 혹형을 가할 때는 다른 혹형을 함께 가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가하므로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 ◆ 장시간 달아매다

후난성 샹시 화위안현 어비촌의 파룬궁 수련생 샤오융캉(肖永康)은 2010년 10월 15일, 화위안현 '610사무실'(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기 위해 만든 불법적인 조직) 주임 스광빈, 정법위원회 둥광용 등에게 납치되어 '법제교육기지'에 감금되었다. 이 세뇌반에서 악인들은 샤오융캉의 입과 귀를 심하게 구타하고, 수갑을 채운 채 허공에 다섯 날 이를 밤을 매달았다. 그는 손목 근육이 찢겨져 나갔고, 차열(고대의 혹형으로,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다섯 마리의 말에 묶은 후 말을 몰아 잔혹하게 찢어 죽임)과 같은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화위안현 환제진 정부의 우지핑은 샤오융캉 박해에 가담해 수하의 악인들에게 "사정을 봐주지 말고 샤오융캉을 호되게 죽치라."라고 지시하

면서 밥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으며 밤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다.

## ◆ 달아매기 + 족쇄 + 전기 충격

안후이성 화이난시 파룬궁 수련생 쉬춘(徐春)은 2003년에 억울하게 9년형을 받고 쑤저우 감옥에 감금되었다. 사악한 교도관은 쉬춘의 두 손을 묶어 철문에 달아매고, 두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발가락 끝만 땅에 닿게 한 채 매일 24시간(밥을 먹고, 화장실로 가는 짧은 시간 제외) 3, 4개월 동안 달아맸다. 사악한 교도관은 또 쉬춘을 빨리 '전향'시키기 위해 매일 저녁 6시 이후에는 강제로 옌관두이(嚴管隊, 전향하지 않는 수련생들을 전문으로 박해하는 팀)로 끌고 가 여러 개의 전기 곤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했다.

## ◆ 가시 수갑을 채워 달아매다

1999년 선달 28일 저녁, 허베이 천시현 상업국 정년퇴직자 장루이잉(張瑞英)은 허베이 탕산카이핑 노동교양소로 납치되었다. 노동교양소에서 악인들은 장루이잉을 농구대에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매달아 놓았다. 수갑에는 가시가 있어 잠깐 지나자 곧 살로 박혀 들어가 움직일수록 더욱 조여들어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가했다. 악인은 또 죄수를 시켜 밑에서 위로 장루이잉의 얼굴에 찬 물을 뿌리게 했다. 장루이잉은 숨이 막혀 질식할 정도였다. 몇 시간 동안 매달렸다가 풀려났을 때, 손목은 피범벅이 되었고 손은 이미



고문시연: 달아매는 고문

감각이 없어져 꼬집어도 아픔이 없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그녀는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고,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했다. 손목의 피멍은 몇 년이나 지나서야 사라졌다.

## ◆ 고대 뾰족구두

황구이룽(黃桂榮)은 랴오닝 여자감옥에서 '고대 뾰족구두'라고 불리는 혹형을 당했다. 어느 날 밤, 당직 교도관 류잉제가 황구이룽에게 이 '고대 뾰족구두' 혹형을 가했다. 그는 못 4~5개를 반 센티미터 정도 남기고 박은 널빤지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두 손을 묶은 황구이룽을 달아맸다. 못을 밟지 않으면 달아맨 손이 아파 참을 수 없었고, 맨발로 못을 밟으면 못이 살을 파고들어 숨이 넘어갔다. 혹형에 시달린 황구이룽의 발에는 구멍이 뚫렸고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 미쳐 날뛰지 말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보라

글/ 쪽

인들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구타했고, 전기곤봉으로 충격을 가했으며, 쑤쉐링의 머리와 가슴을 밟았는데 쑤쉐링은 2시간 넘게 정신을 잃었다. 당덴쥔은 "나 이 당덴쥔은 공산당원이다. 무신론자란 말이다. 나는 그따위 응보를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당덴쥔이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응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2004년 당덴쥔이 암으로 사망할 때는 40세를 넘긴 때였다. 천리가 그를 다스리게 되자 그는 비침하고 무기력했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었다.

## ◆ "내가 바로 악마다"라고 부르짖던 자의 말로

리즈더라는 남성은 허베이 한단 청안현 공안국 국장이다. 리즈더는 청안현 파룬궁 수련생 쉰루이린(尋瑞林), 왕수진(王書軍), 샤원중(夏文仲)을 박해해 살해한 주요 책임자다. 2002년 8월, 리즈더는 68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할 때 "내가 바로 악마다. 나는 너희들을 삼켜버릴 테다."라고 짖어댔다. 그는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 곧 식도암에 걸려 죽기보다 못한 고통을 받았다.

사람들은 선악에 응보가 있는 것이 우주의 운행법칙이라는 것을 안다. 중공을 따라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 이런 자들이 불법(佛法)을 박해하고도 인간의 법과 천리의 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진실한 응보사례를 들어 지금도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중공 악인들에게 경고를 보낸다.

## ◆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응보를 피할 수 없다

당덴쥔이란 한 남성은 허난성 한단시 한산구 공안분국 정보과장으로 매우 사악한 자이다. 한 번은 사악한 경찰 3명을 거느리고 파룬궁 수련생 쑤쉐링(蘇學玲)을 박해했다. 악

## ◆ 불법(佛法)을 비방하다 스스로 천벌을 받다

한단 우안시 베이관가 장건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만약 내가 장쩌민이라면 나는 기관총으로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짖어댔다. 얼마 안 돼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꾸린 제철공장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범인이 그의 명의로 되었기에 거액의 채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극단적인 인생 좌절을 느낀 그는 선달 그믐밤 베이관가 동악묘 언덕에서 폭약을 안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한 쪽 팔만 날아가고 죽지 못해 비참하게 집으로 기어 왔다.

## ◆ 미쳐 날뛰지 말라,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는 이렇다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중공의 고관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의 말로를 보라. 그들을 따라 박해에 가담한 즐개들의 말로도 그들보다 좋을 수 없다. 아직도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중공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즉각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미쳐 날뛰지 말라. 회개하지 않으면 곧 이런 끝장을 맞을 것이다!